

보도일시	2025. 05. 28. (수요일)		
위원회명	기후위기대응위원회	위원장	위성곤 위원장
담당자	이우형 비서관 / 02-784-6450	E-mail	wishjeju@daum.net

기후위, “청년, ESG와 기후를 말하다” 경청간담회 개최

- 한국ESG커뮤니티 x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x 기후커뮤니티 턴테이블 x
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등 4개 청년기후단체와 함께 ESG, 기후정책 논의

더불어민주당 ‘진짜 대한민국’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(위원장 위성곤·위진, 이하 ‘기후위’)는 27일(화), 기후·ESG분야 청년단체들과 함께 <청년, ESG와 기후를 말하다> 라는 주제로 정책 경청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적 기회로 바라보며, 기후, 에너지, 경제,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실무진들과 직접 소통하고,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‘기후경제 전략과 비전’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이날 간담회에는 기후위 위성곤 위원장을 비롯해 ▲한국ESG커뮤니티 ▲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▲기후커뮤니티 턴테이블 ▲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등 기후·ESG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청년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.

국내 최대 규모의 ESG전문 커뮤니티이자, 한국 ESG 생태계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해온 ‘한국ESG커뮤니티’는 ▲녹색금융공사 설립 ▲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및 혁신기술 촉진 펀드 조성 ▲한국 기후변화 벤치마크 연기금 포트폴리오 도입 ▲ESG공시 로드맵 확정 ▲에너지 정책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탈탄소 지원 ▲Say on Climate 위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▲사회적 탄소비용 측정 통한 공공예산 재편성 ▲환경영향·생태 공공데이터 마련 통한 전환 비용 절감 ▲청년 그린잡 포털 및 그린잡 페어 개최 등 9가지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.

“청년이 주체가 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”라는 비전 아래 모인 ‘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’는 ▲글로벌 기준에 통용될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로드맵 제시 ▲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 ▲분산형 재생에너지 공급 및 인프라 확대 ▲국민연금의 탈석탄 투자 및 기후 스튜어드십 강화 등을 제안했다.

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을 바탕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‘기후 커뮤니티 턴테이블’은 ▲탄소예산에 기반한 2035 NDC 수립 ▲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확정 및 기업 공시 지원 ▲기후재정 정책 : 기후펀드, 기후채권 발행 ▲기후적응 선도국가 전략마련 등을 제안했다.

“우리의 손으로 기후위기를 끝내는 내일”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‘기후변화청년단체 GEYK’는 ▲지자체 기반 폭염 대응대책 차등화 ▲폭염대책 통합적 중장기 전략 수립 ▲취약계층 조사 기반 기후보험(지수형 보험) 도입 등을 제안했다.

이 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생물다양성 공시, 기후정책의 일관성 및 정밀성 확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,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안들이 활발히 공유되었다.

위성곤 위원장은 “오늘 이 자리는 청년이 정책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, 참여자이자 기획자가 되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”라며, “청년들의 통찰과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선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이어 “기후경제로의 전환, ESG를 통한 기업·금융혁신,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등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들은 결코 국가와 시장만의 몫이 아니다.”라며, “청년 세대가 가진 창의성과 문제의식, 그리고 현장 실무 경험은 이 위기를 돌파할 가장 강력한 자산”이라고 강조했다.

끝으로 “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며, 청년과 함께 그 약속을 지켜가는 일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임”이라며, “청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제안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, 차기 정부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 /끝/



<사진> 2025. 05. 27.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경청간담회